

아르헨티나 간접적인 수입규제 강화 전망

- 2009년에 들어서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아르헨티나의 경기침체가 본격화되어 아르헨티나 폐소화의 급격한 평가절하, 수출 감소, 달러 자본 유출 등의 현상이 지속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입억제를 통한 무역흑자 조치를 발표

- 아르헨티나 정부의 주요 수입억제 대책 내용
 - 자국제품 수출비중 만큼 수입허가 (1달러 : 1달러 이론)
 - 기존 자동수입 허가품목에 대해서도 최대 10일로 허가기간을 연장 제한
 - 2008년 대비 20% 수입을 감소하는 방법을 통해 무역수지흑자 유지
 - 사전 수입승인제 적용 품목 확대
 - 사전 수입승인제 적용품목으로 섬유제품, 장난감, 신발, 자전거, 가정용 제품, 타이어, 오토바이 등이 이미 사전 수입승인 적용을 받고 있음
 - 섬유제품, 목재가구류, 너트류, 농기계, 트랙터, 에어컨 등의 품목에 대해 사전 수입승인제 적용 추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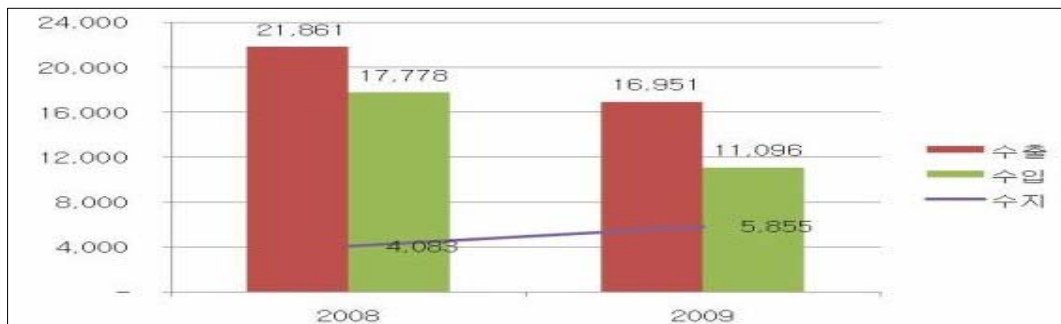
- 이러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간접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강화될 경우 브라질, 중국 등 대 아르헨티나 수입규모가 큰 국가와의 국제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양자 간 통상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

- 한편,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센서스연구소(Indec)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'09년 1사분기중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률이 '08년 4사분기 대비 0.1%, 전년동기 대비 2%의 성장에 그쳐 지난 2002년 이래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

아르헨티나 연도별 경제성장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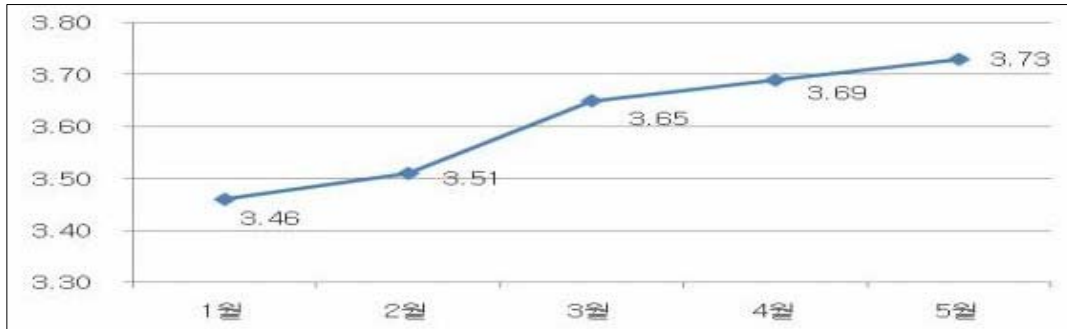
| 2003년 | 2004년 | 2005년 | 2006년 | 2007년 | 2008년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8.8% | 9% | 9.2% | 8.6% | 8.6% | 7.1% |

- 아르헨티나 경제전문가들은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진 않았으나 그 동안의 성장세에 비해 극도로 둔화되었으며 제조업 및 농축산업, 건설 등 분야의 생산성 감소와 수출의 위축 등으로 아르헨티나 경제가 사실상 기술적 침체에 빠진 것으로 분석
- 국제경기의 불황으로 2009년 4개월간 아르헨티나의 전체 교역규모는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아르헨티나 정부의 최소 수입가격제, 사전 수입승인제 강화 등 간접적인 수입억제정책의 영향으로 수지 폭은 증가



자료원 : 아르헨티나통계청

- 한편, '09년 5월 현재 아르헨티나 페소화 환율 수준은 2008년 동기 평균 환율(US\$ 1=3.15페소) 대비 0.58페소 평가 절하되었으며, 특히 2009년 들어서 환율이 급등세가 지속



자료원 : 아르헨티나통계청

<사용파울루 사무소 제공>